

대구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주민인식 연구*

Citizens' Perception on Establishing a New Public Library in Jung-gu, Daegu

조 용 완 (Yong Wan Cho)**

구 정 화 (Joung Hwa Koo)***

초 록

본 연구는 대구 중구에 새로운 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에 관해 지역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대구 중구 관내에서 중구 주민 174명과 향후 중구립 공공도서관을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타 구군 주민 126명 등 총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현재와 미래의 가치를 높이 인식하였고, 공공도서관이 없을 경우, 지역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며 자신과 가족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주민들은 중구의 공공도서관 수는 부족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필요하며, 건립시 이용 의향이 높다고 응답하였다. 이외에도 이번 조사에는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건축 방향과 장서,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도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대구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위한 인식적 타당성은 상당히 확보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이 결과를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계획과 운영계획이 수립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citizens' perception regarding establishing a new public library in Jung-gu, Daegu. The study conducted a survey and the participants(N=300) were recruited using a quota sampling method(174 residents of Jung-gu and 126 others in Daegu who may use public libraries in Jung-gu). The respondents highly recognized both the present and future value of public libraries and the impact to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ut they perceived that they currently have very few public libraries in Jung-gu, Deagu. Thus, they demanded that new public libraries be built in Jung-gu, and had high willingness to use the public libraries. The study also found that respondents' basic direction regarding building a new public library in Jung-gu and their preference on library location, collection, services, etc. The study finally earned the validity in establishing a new municipal library in Jung-gu, Daegu from the results. On the basis of the findings, the study suggested planing the detailed guidelines and directions for further library construction and operation.

키워드: 구립도서관, 공공도서관, 대구 중구, 도서관 인식, 지방자치단체

Municipal Libraries, Public Libraries, Jung-gu in Daegu, Perception of Libraries, Local Government

* 본 논문은 2020년 대구광역시 중구의회(연구단체 청라언덕)의 「대구 중구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 연구보고서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

** 대구가톨릭대학교 도서관학과 부교수(yongwan@cu.ac.kr) (제1저자)

*** 한남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jhkoo@hnu.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1년 8월 13일 논문심사일자 : 2021년 8월 17일 게재확정일자 : 2021년 9월 7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2(3): 115-143, 2021.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1.32.3.115>

© Copyright © 2021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주민의 독서, 정보, 문화, 여가, 정보복지, 평생교육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로 인식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대구의 경우, 중구 외 7개 구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구립 공공도서관이 설립되어 있고, 달성군은 자체적인 도서관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등 공공도서관 확충과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과거 지역별로 극소수의 도서관만이 존재하던 시기에 대구 중구에는 관에서 설립한 유수의 도서관들이 위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 우국지사들이 주도한 민간도서관들도 설립되었을 정도로 대구와 경북을 대표하는 도서관 중심지였으며, 이를 통해 중구 주민들은 타 지역 주민들에 비해 도서관 혜택을 많이 누려왔다.

하지만 최근 중구의 도서관을 둘러싼 환경에 변화가 생기고 있다. 최근까지 사실상 중구 내 지역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유일한 공공도서관이었던 대봉도서관(교육청 소속, 1991년 개관)이 대구교육청의 방침에 따라 2018년 9월말에 운영을 종료하고 동구의 한 폐교로 이전하여 대구 2·28기념학생도서관으로 개관하였고, 대구광

역시립중앙도서관(교육청 소속, 이하 중앙도서관) 산하의 달성분관도 2018년말에 폐관되었다. 대구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중앙도서관은 논란 끝에 2022년부터 라키비움 형태의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명칭과 역할이 변경될 예정이다(김종윤, 2021; 정광진, 2021).¹⁾ 현재 중구에는 지역대표도서관이자 내년에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변경될 중앙도서관과 대구시가 설립하고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위탁운영하는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내 도서관만 존재하고 있을 뿐 중구의 도서관정책을 총괄하고 중구민을 위한 도서관서비스를 책임지는 중구립 공공도서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물론 중구의 도서관 운영을 책임지는 중구청장들도 중구 도서관 발전을 위해 전문도서관 설립, 공공도서관 확충, 작은도서관 설치 등을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다. 하지만 역대 구청장들은 당선 이후 실제로는 작은도서관 확충 공약만 이행하여 현재 중구에는 구립도서관 없이 공립 작은도서관 9개소만 운영되고 있다. 그리고 중구청은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2016-2025」(대구광역시 중구, 2016)을 발표하였는데, 여기에는 2020년 인구 9만명 규모에 맞게 공공도서관을 추가 증설해 총 4개관(기존 중앙도서관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도서관 포함)의 공공도서관 설립 계획을 수립했으나 이 또한 전혀 이행되지 않았다.

최근 중구 전역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원도심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인구

1)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은 2021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국비와 시비 등 188억여 원을 들여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고 2020년 7월에 재개관할 예정이다. 중앙도서관의 기존 장서 51만여 권도 20만권 규모로 축소되며, 약 29만권은 경북 김천상업고에 보관하였다가 향후 대구시가 남구에 건립하는 지역대표도서관인 '대구도서관'으로 이동할 예정이다.

77,421명의 중구는 조만간 인구 10만명 규모로 성장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가도서관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 공공도서관 1관당 인구수는 45,723명인데, 이를 적용하면 대구 중구에는 현재 수준에서는 2개 정도, 향후 원도심 재개발 완료시 최대 3개 정도까지의 공공도서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현재 중구에는 지역대표도서관과 특수목적을 가진 기관에 부속된 공공도서관 2개 외에 중구 주민을 위한 공공도서관은 전무한 상황에서 중구청이 설립, 운영하는 구립 공공도서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하에 본 연구는 대구 중구립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타당성 입증 차원에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중구립 공공도서관 설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대구의 3개 도시철도 노선 모두가 중구를 관통할 정도로 일극체제로 집약화된 조건하에서 중구립 공공도서관이 설립될 경우, 중구를 왕래하는 타 지역 시민들의 이용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구의 타 구군 주민들에 대한 인식조사도 병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설립과 운영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방법

대구 중구립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주민들의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중구지역에서 임의로 표집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설문조사는 2020년 10월 23일부터 11월 6일까지 조사요원들이 중구 주민들이 거주하는 중구 내 여러 아파트단지 주변

과 도시철도 역사의 출입구 주변, 그리고 중구 내에서 유동인구가 많은 반월당과 중앙로 등 중심가 지역 등에서 주민들에게 설문지를 직접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그 결과, 7부 정도의 부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대구 중구 주민 175명과 대구의 타구 군 주민 125명 등 총 300부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설문지의 주요 조사 항목으로는 최근 1년간의 도서관 이용실태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가치인식, 중구 공공도서관의 충분 정도,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과 이용의향,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건축(건물, 시설, 공간)에 대한 의견,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장서,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대구 중구와 중구 공공도서관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기 위해 문헌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도서, 학술논문, 신문기사, 보고서, 웹사이트 등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였다.

1.3 선행연구

공공도서관 전반에 대한 이용자의 요구 및 인식에 관한 연구는 지역대표도서관 혹은 주요 공공도서관의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새로운 도서관 입지 및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연구로 주로 수행되어 왔다. 이를테면, 노영희 외(2021)는 인천광역시 동구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인천시민들을 대상으로 요구 및 인식조사를 수행하였고, 장덕현(2020)은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강은영(2020b)은 부산시청사내 공공도서관의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김선에

와 권나현(2020)은 서울 마포 구립도서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위해, 장인호와 차주환(2017)은 천안시 도서관 발전계획을, 박승진 외(2017)는 울산대표도서관 운영종합계획을, 박승진 외(2016)는 충남대표도서관 운영계획 수립을 위해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방식을 사용하여 수요와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지역별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이용실태, 기존 도서관 서비스 및 운영에 대한 만족도, 도서관의 중요도 혹은 가치와 기대 영역, 시설과 운영 그리고 서비스에 대한 개선 및 요구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발전계획의 방향성을 제안해 왔다.

관련 연구들 중에서 본 연구와 관련된 공공도서관 건립 혹은 공간 및 시설물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요구 및 인식조사 연구들을 중심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강은영(2020a)은 부산시 사상구에 건립될 예정인 공공도서관에 대해 부산시민들의 공공도서관 이용실태 및 목적, 만족도, 비용 여부, 향후 이용 의향과 희망 서비스들을 조사하여 이 지역 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입증하였다. 노영희와 김윤정(2019)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조사를 위해 이용자들의 이용경험(빈도(명), 시간, 이용동기)와 선호도 및 중요 요소들을 질문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복합문화공간이 정보와 교육의 공간뿐 아니라 문화생활 영위와 여가생활 및 휴게 공간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조성하고 홍보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선과 장윤금(2017)은 청소년들의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인식과 요구를 조사하여 청소년자료실 별도설치에 대한 필요성의 근거를 확보하였다. 또한, 청소년자료실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과 향후 공간 활

용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들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일반적인 이용자 요구 및 인식조사 연구와 달리 이용경험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들이 강조된다는 것이지만 앞선 발전계획을 세우기 위해 질문했던 조사내용과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연구대상 지역인 대구지역 도서관인식과 관련된 연구로, 윤희운, 오선경, 이재민(2016)은 대구시민들이 생각하는 도서관의 비중과 중요도, 이용실태(도서관 이용목적, 이용정도, 평균 이용시간, 참여서비스)와 비용의 원인, 도서관이 확충(신설)된다면 요망하는 지역을 조사하였다. 각 인구학적 특히 지역별 특성을 토대로 조사내용을 정리하고 지역대표도서관을 중심으로 공공도서관 중장기 발전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과 남구 지역에 중소형 공공도서관을 건립할 것과 도서관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제고를 위해 대구지역 도서관이 노력해야 할 영역(시설, 장서, 서비스, 홍보 등)들을 제안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공간 구성에 대한 인식 연구로 윤희운(2010)은 대구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의 중요성 인식, 이미지와 접근성, 이용도, 공간과 시설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하였다. 인구학적 특성별(성별, 연령, 거주지별)로 인식의 차이와 불만족의 원인과 희망시설을 분석하였다. 내부 소음과 낮은 접근성(먼 거리)이 불만과 비용의 요인이었고, 자료실 이용 및 배치형태에 대해서도 동선과 협소한 공간으로 불만을 제기하였으며 카페테리아를 비롯한 편의시설 충원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 결과를 근거로 향후 대구지역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에 대한 개선방향과 구체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

에서 연구의의가 크다 하겠다.

본 연구는 대구 중구지역의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대구 시민들의 도서관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받으려 한 까닭에, 앞서 조사되고 분석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들을 설문내용 구성에 참고하였다. 선행연구들의 공통적인 한계인 중복되는 조사내용들과 범위들에도 불구하고, 연구의 의의를 인정받은 까닭은 각 지역의 특수성과 차별성을 찾아내고 이를 근거로 발전방향을 제안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조사를 통해 대구지역 더 구체적으로 대구의 원도심인 중구지역에 대한 이해와 분석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할애하였다. 또한, 중구지역의 주민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과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중구 주민과 타 구군의 주민들의 내용을 비교하였다. 이처럼 본 연구는 일반적인 이용실태 및 요구조사가 아닌 대구지역, 특히 중구라는 지역적 특성에서 파생된 지역 주민들의 구립도서관 건립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는데 중점을 두고자 하였다. 이러한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임과 동시에 이전의 유사한 이용자 요구 및 인식 연구들과 본 연구의 차별적 이자 의의라 할 수 있다.

2. 대구 중구와 중구 공공도서관의 현황

2.1 대구 중구

대구의 원도심인 중구는 현재 대구광역시청과 대구광역시의회 등이 소재한 행정의 중심지이자 대구 내 핵심 상권과 대형 백화점, 대규모

전통시장, 전문적인 소상공업 밀집지역 등을 바탕으로 한 경제의 중심지, 문화회관, 문화센터, 박물관, 미술관 등이 밀집한 문화의 중심지,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된 대구 근대골목을 비롯해 대구시가 선정한 대구12경 중 6개가 포함된 관광의 중심지 그리고 철도역인 대구역과 도시철도 1, 2, 3호선이 모두 교차하는 교통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특히, 중구에 설치된 3개의 환승역을 포함해 총 12개의 도시철도 역사는 촘촘한 시내버스 망과 대구역과 함께 중구를 다른 어떤 구군보다 우수한 교통 편의성을 확보하도록 하였기에, 중구에는 언제나 많은 유동인구가 이동하고 있다.

대구 중구는 대구와 경북의 중심이라는 영광을 누리면서 한때 20만 명에 육박하는 주민이 거주하였으나 타 지역 대도시의 원도심과 유사하게 도시의 확장과 그로 인한 부도심의 형성과 신시가지 조성 등으로 점차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대구 중구의 인구 추세를 살펴보면, <표 1>과 같이 1985년 18만 명 이상이던 인구는 20년 후 2005년 약 8만 명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그 후 조금의 등락을 보이면서 2019년 현재 7만 7천여 명 정도의 주민이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거기에 더해 2016년부터 구 경북도청 본관(대구 북구 연암로 40 (지번) 산격동 1445-3)이 대구시청 별관으로 사용되면서 시청의 경제와 산업관련 부처들과 시 공무원 1,700여 명 중 절반 이상이 중구 외부로 이탈하였고, 2019년 12월 22일에는 대구시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에서 2025년에 달서구 두류동 옛 두류정수장으로 대구시청을 건립, 이전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구는 원도심 공동화가 심화될 상황에 처하였다(구대선, 2019; 류연정, 2018).

〈표 1〉 대구광역시 중구의 인구 변화 추이(대구광역시 중구, 2021)

연도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인구 수(명)	182,808	152,613	114,759	91,880	80,081	77,857	80,928	79,712	78,986	79,401	77,421

하지만, 최근 대구광역시와 중구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과 원도심 지역 재개발, 그리고 대구시청 후적지 개발 등을 계기로 향후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정주환경이 개선되고 있어 향후 새롭게 인구가 유입될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대구 중구청은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통해 과거의 인구증가 추세와 이후의 개발계획 등을 고려하여 2025년 목표 인구를 10만 명으로 설정하였다. 대구 중구와 관련된 주요 도시재생사업을 살펴보면, 중구 전역에 총 28개의 정비예정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 4개소, 주택재개발사업 18개소, 주택재건축사업 3개소, 도시환경정비사업 5개소 등)이 지정되어 현재 중구 전역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대구광역시, 2018, 35-36). 한편, 대구광역시는 대구 전역을 10대 도시재생 권역으로 구분하면서 중구가 중심인 도심권을 재생문화 선도 지역으로 설정하고 중구 내에 총 7개 지역을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으로 지정하였다(대구광역시, 2020).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2017년 7월부터 지역 주도로 도시 공간을 혁신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도입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대구 중구는 총 3개 사업이 포함되었다. 또한 국토교통부의 공모사업인 도시

활력증진지역개발사업에도 대구 중구는 총 7개 사업이 선정되었다. 한편, 2025년 대구 중구에서 달서구로 이전할 대구시청의 후적지 재개발도 대구시와 중구의 협의로 추진되고 있는데(배주현, 2020), 이 후적지 개발사업은 기존의 도심 재개발과 맞물려 도심 정주환경의 개선과 상주인구 유입, 그리고 상권 확장을 통한 유동인구 증대와 같은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2.2 대구 중구의 공공도서관

현재 기록에서 확인되는 대구 중구의 도서관 역사는 1721년(경종1) 경상감사 조태억(趙泰億)이 대구에 설립한 관립 도서관이자 기숙학교인 낙육재(樂育齋)에서 시작된다(대구향교, 2020).²⁾ 그리고 일제의 침탈이 본격화되던 구한말과 일제강점기에는 우국지사들이 현 중구 지역에 계몽과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민간도서관이자 사숙(私塾)인 우현서루(友弦書樓)를 설립하였다.³⁾ 일제강점기 대구부는 1919년 8월 10일에 「대구부도서관조례」를 제정하고 현 중구 내에 대구부립도서관을 설립하였다. 당시 경상북도청(중구 포정동)에 인접한 일본인 재

2) 1807년(순조7)에는 경상감사 윤광안(尹光顔)이 낙육재 내에 도서관에 해당하는 장서각(藏書閣)을 창건하였다. 현재 낙육재 소장 장서 764책은 대구시립중앙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3) 우현서루는 저항시인 이상화의 조부인 이동진의 뜻을 이어 받은 그의 아들이자 이상화의 백부인 소남이일우가 사재를 털어 1904년에 설립하였다(최재목 외, 2009, 213). 하지만 다른 자료에는 1905년 을사조약(을사늑약) 이후에 설립되었다는 의견도 있다. 우현서루에는 중국 등지에서 구한 1만여 권의 장서를 수장한 서고(도서관)가 설치되었다.

향군인회관 구내(또는 인근 국유지)에 공진회(共進會) 진열관(박람회) 용도의 목조 건축물을 재활용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다가 1923년 당시 대구부청 구내(현 중구 동인동)에 대지 1,325평, 연건평 113평의 근대식 지상 2층 건물의 도서관을 건립하였다(조용완, 김종성, 2020, 151-161).⁴⁾

일제 패망과 광복 이후 대구부립도서관은 일시 휴관하였다가 대구부청 구내 도서관 건물에서 1947년에 속관(續館)하였는데, 1949년 6월 대구부청사 화재로 도서관 건물은 대구부청사로 사용되면서 다시 휴관하게 되었다. 한국전쟁과 이후의 혼란으로 무기 휴관 상태이던 대구시립도서관은 1955년 대구시 청사 신축으로 운영을 재개하였으나 1961년 교육법 개정으로 인해 대구 교육청 청사 내로 이전하였다. 이후 1972년 8월 28일 구 회도국민학교로 재이전, 1974년 기존 법원 청사(중구 공평동)로 이전 등의 우여곡절을 거치다가 1985년 대구직할시립중앙도서관이 1985년에 현 중앙도서관 위치에 개관하였다(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9).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으로 지정된 중앙도서관(연면적 10,181㎡)은 2023년 대구 남구에 소재한 주한미군 캠프워커 헬기장 반환부지에 지역대표도서관인 대구도서관이 건립되면 그 지위를 내려놓게 된다(최수경, 2021). 현재 대구시는 국비와 시비 등 188억여 원을 들여 중앙도서관을 라키비움 형태의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변경하기 위해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 중

이며, 2022년 7월경에 완료할 예정이다(정광진, 2021).

중앙도서관 외 대구 중구 내 공공도서관은 2013년에 개관한 2·28민주운동기념회관⁵⁾ 내 도서관이다. 대구시가 2·28정신 계승을 위해 설립한 이 회관은 최초 대구시설관리공단을 거쳐 현재 2.28민주운동기념사업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는데, 건물 내 5개층 중 2개층(연면적 1,093.57㎡)에 열람실과 자료실을 갖춘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다(2·28민주운동기념회관, 2020). 그 외 중구에는 총 9개소의 중구청 소속 공립 작은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가장 작은 곳은 48.7㎡, 가장 큰 곳은 353㎡이며, 9개소의 평균 면적은 136㎡에 불과하다. 장서수도 가장 많은 곳이 18,693권, 가장 적은 곳이 1,236권이며, 9개소의 평균 장서량은 7,036권에 불과하다.

앞에서 본 것처럼 대구 중구는 원도심 공동화로 인구가 과거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으나 최근 광범한 원도심 재생사업과 재건축사업 등을 통해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에는 현재 지역대표도서관에서 조만간 국채보상운동기념도서관으로 변모할 중앙도서관과 대구시에서 설립한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내 도서관과 같이 대구시민 전체에 봉사하는 특수 목적의 공공도서관들만이 존재할 뿐 중구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한 구립도서관은 전무하다. 반면, 중구를 제외한 대구 내 7개 구군 모두는 구민과 군민을 위한 구/군립 공공

4) 그 후 도서관 청사는 대구부 직할출장소나 대구부의 행정부서를 위한 공간으로 잠식되었다가 1940년경에 당시 대구 신정(新町)에 위치한 조양회관(朝陽會館, 현 중구 대신동)으로 이전하였다. 이후 대구부 임시청사, 대구시립도서관, 대구시 중구청, 대구시 보건사회국 등으로 사용되다가 1993년에 철거되었다(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9, 166-167).

5) 2·28민주운동은 1960년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항거해 대구지역 고등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다.

도서관을 적게는 1개관에서 많게는 6개관까지 설립, 운영하고 있어 중구와 상당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3. 대구 중구립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주민 인식

3.1 참가자의 인구통계학적 정보

대구 중구립 공공도서관 설립에 관한 인식적 타당성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설문조사(총 300명)의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번 조사의 결과 중 일부에 대해서는 2014년 중구 주민이 포함된 『대구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 활성화

화 방안』(대구발전연구원, 2014)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와도 비교하며 검토하고자 한다.

먼저 설문조사 참여자들의 기본정보와 관련해 살펴보면, 거주지역에서는 <표 2>와 같이 중구 주민이 174명(58.0%), 타 구군 주민이 126명(42.0%)으로 파악되었는데, 타 구군은 동구 19명(15.1%), 서구 10명(7.9%), 남구 26명(20.6%), 북구 24명(19.0%), 달서구 21명(16.7%), 수성구 20명(15.9%), 달성군 6명(4.8%) 등이었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139명(46.3%), 여성이 161명(53.7%)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령대 측면에서는 <표 3>과 같이 중구와 타 구군 모두 20대가 30% 내외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는데, 이는 중구가 대구의 원도심이고 상권이 발달되어 있어 유동인구의 상당수가 젊은 층인 측면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2> 설문조사 참가자의 연령대

중구			타 구군		
성별	빈도(명)	백분율(%)	성별	빈도(명)	백분율(%)
남성	77	44.3	남성	62	49.2
여성	97	55.7	여성	64	50.8
합계	174	100.0	합계	126	100.0

<표 3> 설문조사 참가자의 연령대

중구			타 구군		
연령대	빈도(명)	백분율(%)	연령대	빈도(명)	백분율(%)
10대	15	8.6	10대	17	13.5
20대	50	28.7	20대	43	34.1
30대	24	13.8	30대	20	15.9
40대	23	13.2	40대	16	12.7
50대	26	14.9	50대	13	10.3
60대	25	14.4	60대	9	7.1
70대 이상	11	6.3	70대 이상	8	6.3
합계	174	100	합계	126	100

3.2 도서관 이용 실태와 공공도서관에 대한 가치인식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횟수에 관한 질문에서 중구 주민들은 <표 4>와 같이 월 1~2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총 25.9%였고, 2~3개월 1회와 연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36.2%, 이용 안함이 37.9%로 나타났다. 타 구군 주민들은 월 1~2회 이상 이용한다는 응답이 총 32.5%, 2~3개월 1회와 연1~2회 이용한다는 응답이 42.0%, 이용안함이 25.4%로 나타나 중구 주민이 타 구군 주민보다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었다.⁶⁾

지난 1년간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들에 한해 도서관 이용 목적을 질문(2개 선택)한 결과, <표 5>와 같이 중구 주민들은 독서(열람)와 자료대출 38.9%, 개인학습 24.9%, 자료조사와 연구 14.0%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타 구군 주민도 중구 주민과 거의 비슷하게 독서(열람)와 자료대출 38.0%, 개인학습 26.9%, 자료조사와 연구 12.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응답자들은 주로 자료열람과 개인 학습을 위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⁷⁾

<표 4> 최근 1년간 도서관 이용횟수

질문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주 3회 이상	7	4.0	7	5.6
주 1~2회	14	8.0	15	11.9
월 1~2회	24	13.8	19	15.1
2~3개월 1회	28	16.1	26	20.6
연 1~2회	35	20.1	27	21.4
이용 안함	66	37.9	32	25.4
합계	174	100	126	100

6) 이제환(2020)은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의 도서관 관련 주민 인식과 이용에 관련된 연구들에 대한 메타 분석 연구를 수행하면서, 기존 연구들의 결과가 도서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이용의 실제보다 과대평가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는 대부분의 연구들이 연구영역을 수행하는 소규모 지역에서 1회성으로 수행되었고 조사방법에서 객관성이 결여되었으며, 조사대상 선정과 설문지 구성에서 도서관 중심적 의도가 투영되었기에 조사결과에 대한 객관적 신뢰성 담보가 어렵다고 비판하였다. 이 연구에서 최근 1년 내 도서관 이용자의 비율에 관해 조사한 4편의 연구에서 각각 63%, 92%, 94%, 98%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 1회 이상 도서관 이용자의 비율은 중구는 62.1%, 타 구군은 74.6%, 전체는 67.3%로 나타났다. 반면 전국적 차원에서 층화다단계집락 표본추출법을 통해 9천명 이상을 체계적으로 표집하여 실시한 2019년 「국민독서실태조사」에서 연 1회 이상 도서관을 찾은 사람(성인)은 23.9%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제환의 연구에서 분석된 8편의 연구에서 도서관 이용자 중 주 1회 이상 도서관 이용자의 비율은 최소 9.7%부터 34%, 38%, 47%, 50%, 54%, 61%, 64%에 이르고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는 최근 1년 내 도서관 이용자 중 주 1회 이상 이용자의 비율이 대구 중구는 19.4%, 타 구군은 23.4%, 전체는 21.3%로 나타났다.

7) 이제환(2000)은 앞의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서 나타나 도서관 이용목적에 대한 조사결과도 비교하였다. 각 구별로 문항의 차이가 있어 직접 비교하기 어렵지만, 자료 열람과 대출의 비중은 각각 34.5%, 41.1%, 44.7%, 66.6%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중구 38.9%, 타 구군 38.0%, 전체 38.5%였다. 그리고 위 연구에서 도서관 이용목적 중 개인학습, 공부의 비중은 각각 13.7%, 16.5%, 23.5%, 32.5%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중구 24.9%, 타 구군 26.9%, 전체 25.8%로 나타났다.

〈표 5〉 도서관 이용의 주요 목적

질문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독서(열람)와 자료대출	75	38.9	65	38.0
자료조사와 연구	27	14.0	21	12.3
개인 학습(예: 시험/자격증 준비)	48	24.9	46	26.9
도서관 행사 참여	13	6.7	8	4.7
교육과 강좌 수강	10	5.2	12	7.0
모임과 동아리 활동	6	3.1	6	3.5
전자책/전자정보 이용	3	1.6	4	2.3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	9	4.7	6	3.5
기타	2	1.0	3	1.8
합계	193	100	171	100

이어서 지난 1년간 도서관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사람들에 한해,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2개 선택해 달라고 질문한 결과, 〈표 6〉과 같이 중구 주민들은 갈 시간 없음 33.6%, 시간대가 많지 않음 18.9%,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음 13.1%, 기타 8.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타 구군 주민들은 갈 시간 없음 33.3%,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음 20.4%, 시

간대가 많지 않음 14.8%, 기타 11.1% 등의 순으로 응답하여, 중구 주민들과 유사하였지만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다는 응답이 중구에 비해 조금 더 높았고 시간대가 많지 않다는 응답은 조금 더 낮게 나타났다.

지역사회에서 현재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가치 정도에 대한 질문(7점 만점)에서 〈표 7〉과 같이 중구 주민은 5.06점, 타 구군 주민은 5.51

〈표 6〉 도서관 미이용 이유

질문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찾기 어려움	5	4.1	3	5.6
읽을 자료(책)이 없음	4	3.3	3	5.6
직원(사서)가 도움이 되지 못함	1	0.8	0	0.0
갈 시간 없음	41	33.6	18	33.3
좋은 프로그램(행사)이 없음	1	0.8	0	0.0
교통이 불편	9	7.4	3	5.6
시설이 좋지 않음	6	4.9	0	0.0
시간대가 맞지 않음	23	18.9	8	14.8
이용절차가 복잡함	6	4.9	2	3.7
도서관에 갈 필요가 없음	16	13.1	11	20.4
기타	10	8.2	6	11.1
합계	122	100	54	100

〈표 7〉 지역사회에서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가치 정도

질문	그룹	항목	매우 적다	다소 적다	적다	보통	크다	다소 크다	매우 크다	N	평균	표준 편차
현재 가치	중구	빈도(명)	4	9	14	32	38	40	37	174	5.06	1.559
		백분율(%)	2.3	5.2	8.0	18.4	21.8	23.0	21.3	100.0		
	타 구군	빈도(명)	4	3	10	13	16	38	42	126	5.51	1.594
		백분율(%)	3.2	2.4	7.9	10.3	12.7	30.2	33.3	100.0		
향후 가치	중구	빈도(명)	5	10	8	34	32	35	50	174	5.20	1.638
		백분율(%)	2.9	5.7	4.6	19.5	18.4	20.1	28.7	100.0		
	타 구군	빈도(명)	4	2	9	17	18	29	47	126	5.52	1.594
		백분율(%)	3.2	1.6	7.1	13.5	14.3	23.0	37.3	100.0		

점으로, 두 집단 모두 가치가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중구 주민보다는 타 구군 주민이 더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향후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가치 정도에 대한 질문(7점 만점)에서 중구 주민은 5.20점, 타 구군 주민은 5.52점으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 공공도서관이 향후에 현재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질 것으로 응답하였는데, 현재 가치와 미래 가치 인식에 큰 차이가 없는 타 구군 주민과 달리 중구 주민은 현재보다 향후의 공공도서관 가치를 더 높게 인식하였다.

지역사회에 공공도서관이 없을 경우, 지역사회와 자신/가족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알아

보았다. 먼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7점 만점)에 대해 〈표 8〉과 같이 중구 주민은 5.25점, 타 구군 주민은 5.58점으로 나타나 모두 영향을 클 것으로 인식하였으며, 타구 주민들이 중구 주민들에 비해 더 크다고 응답하였다. 이어 자신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7점 만점)에 대해 〈표 8〉과 같이 모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는데, 중구 주민에 비해 타 구군 주민에 더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양측 모두 공공도서관 부재시 자신과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은 지역사회 전체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조금 더 적게 나타났다.

〈표 8〉 공공도서관이 없을 경우, 지역사회와 자신/가족에 미치는 영향 정도

질문	그룹	항목	매우 적다	다소 적다	적다	보통	크다	다소 크다	매우 크다	N	평균	표준 편차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	중구	빈도(명)	3	10	12	33	24	41	51	174	5.25	1.618
		백분율(%)	1.7	5.7	6.9	19.0	13.8	23.6	29.3	100.0		
	타 구군	빈도(명)	5	2	5	17	20	28	49	126	5.58	1.592
		백분율(%)	4.0	1.6	4.0	13.5	15.9	22.2	38.9	100.0		
자신과 가족에 미치는 영향	중구	빈도(명)	6	16	11	47	28	36	30	174	4.74	1.658
		백분율(%)	3.4	9.2	6.3	27.0	16.1	20.7	17.2	100.0		
	타 구군	빈도(명)	6	8	10	23	27	19	33	126	4.95	1.747
		백분율(%)	4.8	6.3	7.9	18.3	21.4	15.1	26.2	100.0		

3.3 중구 공공도서관의 충분 정도와 구립도서관 건립 필요성

현재 중구 공공도서관 수의 충분 정도(7점 만점)에 대해 <표 9>와 같이 중구 주민과 타 구군 주민 모두 3.60으로 응답하여 어느 정도 부족하다는 인식하였다. 부족하다는 의견(부족, 다소 부족, 매우 부족)은 양측이 각각 50.6%, 50.0%로 충분하다는 의견(충분, 다소 충분, 매우 충분)은 26.4%, 27.0%에 비해 더 높게 나타났다.

한편, 『대구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방안』(대구발전연구원, 2014) 연구에서 거주지의 도서관 수 충분도(5점 척도, 매우부족 1점~매우충분 5점)에 대해 대구 중구청 조사자는 <표 10>과 같이 2.40으로 응답하여 당시 중구 주민(추정)들도 공공도서관이 조금 부족한 편으로 인식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

한 결과는 대구시민 전체 평균 2.54에 비해 조금 더 낮은 것이며, 대구 8개 구군 중 남구청 조사자 1.79, 북구청 조사자 2.22에 이은 세 번째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었다. 2014년 당시 중구에 공공도서관은 3개관이 있었음에도 중구 주민들은 도서관에 대한 부족함을 지적하였다. 2021년 현재 중구에는 대봉도서관이 이전하여 2개관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본 조사의 결과는 2014년 조사와 같이 공공도서관 수가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어서 중구 주민을 위한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에 대한 질문(7점 만점)에서 <표 11>과 같이 중구 주민은 5.16, 타 구군 주민은 4.94로 응답하여 양측 모두 중구에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는데, 중구 주민이 타 구군 주민보다 조금 더 높게 공공도서관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위 응답에서 필요하다는 의견(필요, 다소 필요, 매우 필요)은

<표 9> 현재 중구 공공도서관 수의 충분 정도

그룹	항목	매우 부족	다소 부족	부족	보통	충분	다소 충분	매우 충분	N	평균	표준편차
중구	빈도(명)	15	32	41	40	23	12	11	174	3.60	1.605
	백분율(%)	8.6	18.4	23.6	23.0	13.2	6.9	6.3	100.0		
타 구군	빈도(명)	14	25	24	29	15	6	13	126	3.60	1.758
	백분율(%)	11.1	19.8	19.0	23.0	11.9	4.8	10.3	100.0		

<표 10> 거주지의 도서관 수 충분도(일반시민) (대구발전연구원, 2014)

구분	항목	도서관 수 충분도					N	평균	표준편차
		매우 충분	어느 정도 충분	그저 그러함	다소 부족	매우 부족			
대구전체 (8개구군)	빈도(명)	9	78	106	149	68	410	2.54	1.046
	백분율(%)	2.2	19.0	25.9	36.3	16.6	100.0		
중구청 (조사장소)	빈도(명)	1	5	10	17	7	40	2.40	1.008
	백분율(%)	2.5	12.5	25.0	42.5	17.5	100.0		

〈표 11〉 중구민들을 위한 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

그룹	항목	매우 불필요	다소 불필요	불필요	보통	필요	다소 필요	매우 필요	N	평균	표준편차
중구	빈도(명)	5	6	12	39	33	30	49	174	5.16	1.600
	백분율(%)	2.9	3.4	6.9	22.4	19.0	17.2	28.2	100.0		
타 구군	빈도(명)	7	4	8	27	33	18	29	126	4.94	1.651
	백분율(%)	5.6	3.2	6.3	21.4	26.2	14.3	23.0	100.0		

중구 주민이 64.4%, 타 구군 주민이 63.5%로, 불필요하다는 의견(불필요,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13.2%, 15.1%보다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⁸⁾

한편, 2014년 대구발전연구원 조사 중 거주지의 도서관 추가 건립 필요성(5점 척도, 전혀 필요 없음 1점~매우 필요 5점)에 대한 질문에 서도 중구청 조사자들은 〈표 12〉와 같이 3.95로 응답하였다. 이는 같은 조사에서 북구청 조사자 4.17, 달서구청 조사자 4.01에 이은 3위에 해당하며 대구시민 전체 평균 3.71보다 높은 것이었다. 조사 당시 공공도서관이 3개관이었던 상황에서도 중구 주민들은 도서관 건립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였다. 2021년 현재 중구에 공

공도서관이 2개관만 운영되고 있어 본 조사의 결과도 2014년 조사와 같이 공공도서관 추가 건립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용 의향(7점 만점)에 대해 〈표 13〉과 같이 중구 주민들은 5.18, 타 구군 주민들은 4.90으로 응답하여 모두 상당한 이용 의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타 구군 주민의 이용 의향도 중구 주민 못지않게 높은 것은 이번 조사가 중구 지역에서 실시되었기에 설문문에 참여한 타 구군 주민들 중 상당수가 중구에 직장이나 거래처가 있거나 개인적 용무 등으로 중구 지역을 자주 왕래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4년 대구발전연구원 조사 중 15분

〈표 12〉 거주지의 도서관 추가 건립 필요성(일반시민) (대구발전연구원, 2014)

구분	항목	도서관 추가 건립 필요성					N	평균	표준편차
		매우 필요	다소 필요	그저 그러함	별로 필요 없음	전혀 필요 없음			
대구전체 (8개구군)	빈도(명)	120	138	84	51	17	410	3.71	1.136
	백분율(%)	29.3	33.7	20.5	12.4	4.1	100.0		
중구청 (조사장소)	빈도(명)	13	18	4	4	1	40	3.95	1.037
	백분율(%)	32.5	45.0	10.0	10.0	2.5	100.0		

8) 앞의 이재환(2020)의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4편에 나타난 공공도서관 신설에 동의하는 응답자들의 비율은 각각 61%, 63%, 73%, 78%라고 밝혔다. 본 연구에서는 중구 공공도서관 건립 필요성에 대해 7점 척도로 질문하여 기존 연구와 직접적 비교는 어렵다. 하지만, 응답 중에서 필요 이상의 응답만 살펴보면 중구 64.4%, 타 구군 63.5%, 전체 64.0%로 나타났다.

〈표 13〉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시 이용 의향

그룹	항목	매우 없음	다소 없음	없음	보통	있음	다소 있음	매우 있음	N	평균	표준 편차
중구	빈도(명)	5	10	8	36	35	27	53	174	5.18	1.651
	백분율(%)	2.9	5.7	4.6	20.7	20.1	15.5	30.5	100.0		
타 구군	빈도(명)	10	6	7	27	22	22	32	126	4.90	1.828
	백분율(%)	7.9	4.8	5.6	21.4	17.5	17.5	25.4	100.0		

〈표 14〉 15분 거리에 도서관 건립시 방문의사(일반시민) (대구발전연구원, 2014)

구분	항목	도서관 건립시 방문의사					N	평균	표준편차
		매우 많음	약간 있음	그저 그러함	별로 없음	전혀 없음			
대구전체 (8개구군)	빈도(명)	231	109	50	11	8	409	4.33	0.929
	백분율(%)	56.5	26.7	12.2	2.7	2.0	100.0		
중구청 (조사장소)	빈도(명)	26	10	3	1	-	40	4.53	0.751
	백분율(%)	65.0	25.0	7.5	2.5	-			

거리에 도서관 건립 시, 방문의사(5점 척도, 전혀 없음 1점~매우 많음 5점)에 대해 중구청의 조사 결과는 〈표 14〉와 같이 4.53으로 나타나 중구 주민의 도서관 방문의사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⁹⁾ 설문내용과 척도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만, 본 조사와 2014년 조사에서 중구 주민들은 모두 새로운 공공도서관 건립시 이용할 의향이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4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건축에 관한 인식

3.4.1 중구립 공공도서관 입지에 관한 인식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시, 중요한 입지조건 고려사항 2개를 선택해달라는 질문에서 〈표 15〉와 같이 중구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좋은 곳

(37.3%), 중구의 중심지역(17.1%), 주변이 조용한 곳(13.0%),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11.3%)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고, 타 구군 주민들은 대중교통이 좋은 곳(43.5%), 주변이 조용한 곳(17.3%),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10.9%), 중구의 중심지역(10.5%) 순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양측 모두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을 최우선 입지조건으로 요구하고 있었지만 타 구군 주민들은 중구 외부에서 이용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중구의 중심지보다는 대중교통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고, 중구 주민들은 자신들의 접근 편리를 위해 중구의 중심지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3.4.2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물에 관한 인식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시, 건물의 조건에

9) 이러한 결과는 대구시민 전체 평균이 4.33인 것에 비해서 높은 것이며, 달서구청 조사자의 4.76에 이은 2번째에 해당하는 것이다.

〈표 15〉 중구 주민의 중구립 공공도서관 입지에 관한 인식

질문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빈도(명)	백분율(%)
대중교통이 좋은 곳	129	37.3	108	43.5
중구의 중심지역	59	17.1	26	10.5
균형발전을 위한 낙후지역	39	11.3	27	10.9
공공기관 부근	14	4.0	12	4.8
상가지역 부근	4	1.2	0	0.0
주변이 조용한 곳(공원)	45	13.0	43	17.3
아파트단지 밀집지역	31	9.0	18	7.3
학교 부근	22	6.4	14	5.6
기타	3	0.9	0	0.0
합계	346	100	248	100

대해 질문(7점 만점)하였다. 먼저 대중교통을 통한 쉬운 접근성에 대해 중구 주민은 5.9, 타 구군 주민은 6.2로 응답하였다. 그리고 도서관을 승용차 이용하기 위해 충분한 주차장 확보에 대해 중구 주민은 5.7, 타 구군 주민은 6.0로 응답하였다(〈표 16〉 참고). 이처럼 주민들이 도서관 건축시 대중교통 접근성과 승용차 이용을 위한 주차장 확보가 대립적이지 않고 병행되어야 하는 조건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차장 확보에서 중구 주민들이 조금 낮게 응답한 것은 타 구군 주민보다 도서관에 대한 인접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도서관 규모와 관련해 충분한 자료와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큰 건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중구 주민은 5.4, 타 구군 주민은 5.7로 응답하였다. 이어 도서관 건축 예산을 고려해 가급적 건물은 작은 건물이 필요하다는 질문에 중구 주

민은 3.8, 타 구군 주민은 3.5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주민들이 소규모의 도서관 건물보다는 규모 있는 도서관을 통해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중구 주민은 큰 건물에 대한 선호와 작은 건물에 대한 불호가 타 구군 주민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나타났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생활형 SOC 사업¹⁰⁾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포함하는 복합생활시설의 건립이 권장되는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타 시설과 복합건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공공도서관이 공공기관과 복합건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중구 주민과 타 구군 주민은 모두 4.7로 응답하였고 공공도서관이 상업 시설과 복합건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 중구 주민은 4.6, 타 구군 주민은 5.1로 응답하여 모두 긍정적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

도서관을 친환경 녹색건물로 건립하는 것에

10) 정부는 양적성장 중심 투자였던 기존 SOC 사업을 탈피해 일상생활과 밀접한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격차 완화를 하고자 「생활SOC 3개년계획(2020~2022)」(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을 추진하고 있다.

〈표 16〉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물에 관한 인식

질문	그룹	항목	매우 부정	다소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다소 긍정	매우 긍정	N	평균	표준 편차
대중교통을 통한 쉬운 접근성	중구	빈도(명)	1	2	4	22	27	38	80	174	5.91	1.287
		백분율(%)	0.6	1.1	2.3	12.6	15.5	21.8	46.0	100.0		
	타 구군	빈도(명)	1	1	1	11	9	29	74	126	6.25	1.164
		백분율(%)	0.8	0.8	0.8	8.7	7.1	23.0	58.7	100.0		
승용차 이용을 위한 충분한 주차장	중구	빈도(명)	0	1	6	33	27	42	65	174	5.71	1.271
		백분율(%)	0.0	0.6	3.4	19.0	15.5	24.1	37.4	100.0		
	타 구군	빈도(명)	3	0	5	11	11	32	62	124	5.99	1.388
		백분율(%)	2.4	0.0	4.0	8.9	8.9	25.8	50.0	100.0		
충분한 자료와 서비스를 위한 큰 건물	중구	빈도(명)	2	3	9	35	38	39	48	174	5.37	1.395
		백분율(%)	1.1	1.7	5.2	20.1	21.8	22.4	27.6	100.0		
	타 구군	빈도(명)	2	5	3	22	13	25	54	124	5.66	1.556
		백분율(%)	1.6	4.0	2.4	17.7	10.5	20.2	43.5	100.0		
건축예산을 고려해 가급적 작은 건물	중구	빈도(명)	16	27	31	48	23	13	16	174	3.79	1.691
		백분율(%)	9.2	15.5	17.8	27.6	13.2	7.5	9.2	100.0		
	타 구군	빈도(명)	18	17	22	42	10	7	9	125	3.53	1.664
		백분율(%)	14.4	13.6	17.6	33.6	8.0	5.6	7.2	100.0		
공공기관(행정기관/기록관 등)과 복합건물	중구	빈도(명)	8	5	23	54	24	25	35	174	4.70	1.646
		백분율(%)	4.6	2.9	13.2	31.0	13.8	14.4	20.1	100.0		
	타 구군	빈도(명)	12	7	11	28	18	18	31	125	4.69	1.919
		백분율(%)	9.6	5.6	8.8	22.4	14.4	14.4	24.8	100.0		
상업시설(카페/서점 등)과 복합건물	중구	빈도(명)	13	6	26	41	27	28	33	174	4.60	1.766
		백분율(%)	7.5	3.4	14.9	23.6	15.5	16.1	19.0	100.0		
	타 구군	빈도(명)	8	9	7	15	23	24	38	124	5.10	1.863
		백분율(%)	6.5	7.3	5.6	12.1	18.5	19.4	30.6	100.0		
도서관을 친환경 녹색건물로 건립	중구	빈도(명)	2	7	8	39	35	36	47	174	5.26	1.478
		백분율(%)	1.1	4.0	4.6	22.4	20.1	20.7	27.0	100.0		
	타 구군	빈도(명)	4	8	6	32	20	18	37	125	5.06	1.698
		백분율(%)	3.2	6.4	4.8	25.6	16.0	14.4	29.6	100.0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아름다운 건축물	중구	빈도(명)	0	5	10	39	21	43	56	174	5.47	1.429
		백분율(%)	0.0	2.9	5.7	22.4	12.1	24.7	32.2	100.0		
	타 구군	빈도(명)	1	4	11	28	16	24	40	124	5.31	1.552
		백분율(%)	0.8	3.2	8.9	22.6	12.9	19.4	32.3	100.0		
첨단 디지털 기술이 잘 결합된 건축물	중구	빈도(명)	1	3	6	36	33	45	50	174	5.48	1.333
		백분율(%)	0.6	1.7	3.4	20.7	19.0	25.9	28.7	100.0		
	타 구군	빈도(명)	0	1	7	24	19	36	38	125	5.57	1.297
		백분율(%)	0.0	0.8	5.6	19.2	15.2	28.8	30.4	100.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잘 배려하는 건축물	중구	빈도(명)	0	2	1	22	26	38	85	174	6.02	1.178
		백분율(%)	0.0	1.1	0.6	12.6	14.9	21.8	48.9	100.0		
	타 구군	빈도(명)	0	3	0	7	10	30	75	125	6.31	1.096
		백분율(%)	0.0	2.4	0.0	5.6	8.0	24.0	60.0	100.0		

대해 중구 주민은 5.3, 타 구군 주민은 5.1로 응답해 주민들은 도서관을 친환경 건물로 건립하기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중구가 대구 관광의 중심지임을 고려하여 도서관 건물을 관광자원으로 활용되도록 아름다운 건축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중구 주민은 5.5, 타 구군 주민은 5.3로 응답하여 상당한 동의를 표하였다. 이 두 질문에서 중구 주민은 타 구군 주민보다 조금 높은 긍정 응답을 보여주었다.

최근 4차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관련 기술의 보급 등을 고려해 도서관 건물을 첨단 디지털 기술이 잘 결합된 건축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구 주민은 5.5, 타 구군 주

민은 5.6으로 응답하여 높은 긍정 의견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도서관 건물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잘 배려하는 건축물로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중구 주민은 6.0, 타 구군 주민은 6.3으로 응답하여 취약계층을 배려하는 건축물로 건축하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고 인식하였다. 이 두 질문에서 중구 주민은 타 구군 주민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긍정의견을 보여주었다.

3.4.3 중구립 공공도서관 시설에 관한 인식
다음으로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시, 시설 구성(7점 만점)에 대해 질문하였다(〈표 17〉참고). 먼저 독서, 휴식, 업무를 위해 지금보다 더

〈표 17〉 중구립 공공도서관 시설에 관한 인식

질문	그룹	항목	매우 부정	다소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다소 긍정	매우 긍정	N	평균	표준 편차
독서/휴식/업무 등을 위해 지금 더 안락한 시설이 필요	중구	빈도(명)	1	1	4	34	28	57	49	174	5.61	1.234
		백분율(%)	0.6	0.6	2.3	19.5	16.1	32.8	28.2	100.0		
	타 구군	빈도(명)	3	1	4	18	26	31	43	126	5.60	1.409
		백분율(%)	2.4	0.8	3.2	14.3	20.6	24.6	34.1	100.0		
신기술/안락한 독서/프로그램/행사 등을 위해 인쇄자료와 서가공간을 지금보다 축소	중구	빈도(명)	8	13	11	43	48	28	23	174	4.64	1.576
		백분율(%)	4.6	7.5	6.3	24.7	27.6	16.1	13.2	100.0		
	타 구군	빈도(명)	5	11	14	33	20	23	19	125	4.58	1.667
		백분율(%)	4.0	8.8	11.2	26.4	16.0	18.4	15.2	100.0		
시제품/상품 제작을 위한 3D프린터와 다른 디지털 장비의 구입	중구	빈도(명)	4	12	10	45	34	42	27	174	4.88	1.529
		백분율(%)	2.3	6.9	5.7	25.9	19.5	24.1	15.5	100.0		
	타 구군	빈도(명)	5	4	13	35	18	26	24	125	4.85	1.612
		백분율(%)	4.0	3.2	10.4	28.0	14.4	20.8	19.2	100.0		
내부공간은 고정된 것보다 필요시 확장/축소가 가능한 형태로 설치	중구	빈도(명)	0	3	4	40	44	46	37	174	5.36	1.212
		백분율(%)	0.0	1.7	2.3	23.0	25.3	26.4	21.3	100.0		
	타 구군	빈도(명)	1	3	5	27	23	29	37	125	5.42	1.404
		백분율(%)	0.8	2.4	4.0	21.6	18.4	23.2	29.6	100.0		
청소년의 여가/취미/진로/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 필요	중구	빈도(명)	1	3	3	37	30	52	48	174	5.53	1.289
		백분율(%)	0.6	1.7	1.7	21.3	17.2	29.9	27.6	100.0		
	타 구군	빈도(명)	2	4	1	15	26	36	41	125	5.65	1.375
		백분율(%)	1.6	3.2	0.8	12.0	20.8	28.8	32.8	100.0		

안락한 시설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구 주민, 타 구군 주민 모두 5.6으로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신기술, 안락한 독서, 프로그램/행사 등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인쇄자료와 서가공간을 기존 도서관보다 축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구 주민, 타 구군 주민 모두 4.6으로 응답하여 어느 정도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민들이 시제품과 상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3D프린터와 다른 디지털 장비의 구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중구 주민은 4.9, 타 구군 주민은 4.6으로 나타나 대체로 공감하였으며, 중구 주민이 조금 더 높은 응답을 보였다. 도서관 내부 공간을 고정된 것보다 필요시 확장/축소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것에 대해 중구 주민, 타 구군 주민 모두 5.4 정도로 응답하여 향후 도서관 건립시, 이동 서가나 가변 벽 등을 활용해 공간을 가변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매우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현재 국내 공공도서관 내 전용

공간이 거의 없는 점을 고려해 청소년들의 여가/취미/진로/휴식을 위한 전용 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중구 주민은 5.5, 타 구군 주민은 5.6으로 응답하여 매우 높은 긍정을 나타냈다.

3.4.4 중구립 공공도서관 공간에 관한 인식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 시, 도서관 공간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공간은 무엇인지 총 12개 항목 중 3개를 선택하도록 주민들에게 요청하였다. 조사 결과, <표 18>과 같이 중구 주민들은 자료실 내 독서/열람 공간(23.3%), 개인자습을 위한 자유열람실(17.6%), 휴게공간(북카페/식당)(13.0%), 컴퓨터와 인터넷 공간(12.2%), 프로그램/평생교육 공간(9.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타 구군 주민들도 프로그램/평생교육 공간이 3위, 컴퓨터와 인터넷 공간이 4위로 순위가 바뀌었을 뿐 1-7위에 포함된 공간의 유형은 중구 주민들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표 18> 중구립 공공도서관에서 중요한 공간에 관한 인식

항목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순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자료실 내 독서/열람 공간	120	23.3	1	84	22.6	1
개인 자습을 위한 자유열람실	91	17.6	2	68	18.3	2
컴퓨터/인터넷 공간	63	12.2	4	50	13.4	3
음악/영상 감상 공간	25	4.8	7	17	4.6	7
강연/공연/행사용 대강당/다목적홀	33	6.4	6	23	6.2	6
휴게공간(북카페/식당)	67	13.0	3	44	11.8	4
프로그램/평생교육 공간	48	9.3	5	44	11.8	4
디지털 미디어(촬영/편집/녹음) 공간	24	4.7	8	10	2.7	10
전시 공간	12	2.3	10	6	1.6	11
동아리/주민모임 공간	21	4.1	9	13	3.5	8
메이커스페이스(기술 이용 창작)공간	10	1.9	11	12	3.2	9
기타	2	0.4	12	1	0.3	12
합계	516	100	-	372	100	-

보였다(〈표 18〉 참고). 이처럼 중구와 타 구군 주민들은 대체로 전통적인 공공도서관의 공간 구성을 선호하며, 최근 부각되고 있는 현대적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공간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이들이 공공도서관을 이용하면서(또는 이용한 경험이 없어서) 아직 이러한 공간에 대한 경험할 기회가 없어 이해도가 높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3.5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장서, 서비스, 이용자에 관한 인식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시, 주민들은 장서, 서비스, 이용자 측면에서 각각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먼저, 장서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유형들은 무엇인지 총 13개 항목 중 3개를 선택하도록 요청하

였다. 〈표 19〉와 같이 중구 주민들은 일반도서(문학/교양)(25.6%), 어린이도서(12.5%), 전자도서(이북)(12.3%), 영상 스트리밍(wave, 넷플릭스) 8.3%, 학술도서(7.3%)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다. 타 구군 주민들은 일반도서, 학술도서, 전자도서, 어린이도서, 영상 스트리밍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중구 주민들과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1-5위에 포함된 자료의 유형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반면, 양측 주민들은 약간의 순위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타를 제외하고 점자도서, 신문/잡지, 음성도서, 큰글씨도서 등에 대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다

이어 도서관 서비스 측면에서 중요하게 고려할 것은 무엇인지 총 14개 항목 중 3개를 선택하도록 요청하였다. 그 결과, 〈표 20〉과 같이 중구 주민들은 독서 관련 서비스 23.8%, 정보활용 교육 서비스 15.9%, 정보검색 및 제공 서비스

〈표 19〉 중구립 공공도서관에서 중요한 장서에 관한 인식

항목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순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일반도서(문학/교양)	133	25.6	1	102	27.4	1
유아 그림책	33	6.4	7	19	5.1	7
어린이도서	65	12.5	2	37	9.9	4
학술도서	38	7.3	5	49	13.2	2
전자도서(이북, e-book)	64	12.3	3	46	12.4	3
음성도서(오디오북)	23	4.4	9	9	2.4	12
신문/잡지	20	3.9	11	14	3.8	9
큰글씨(대활자)도서	31	6.0	8	12	3.2	10
점자도서	10	1.9	12	12	3.2	10
외국어/다국어 도서	23	4.4	9	23	6.2	6
비도서자료(CD/DVD/블루레이)	35	6.7	6	17	4.6	8
영상 스트리밍(wave, 넷플릭스)	43	8.3	4	32	8.6	5
기타	1	0.2	13	0	0.0	13
합계	519	100	-	372	100	-

〈표 20〉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시 중요 서비스에 관한 인식

항목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순위	빈도(명)	백분율(%)	순위
독서(독서지도/독서교육) 서비스	123	23.8	1	72	19.2	2
정보활용(도서관/컴퓨터/스마트폰) 교육 서비스	82	15.9	2	74	19.7	1
정보 검색 및 제공 서비스	73	14.1	3	46	12.3	4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62	12.0	4	60	16.0	3
건강과 보건에 관한 정보서비스	19	3.7	8	11	2.9	10
메이커스페이스(기술 이용 창작) 교육/활용 서비스	12	2.3	12	7	1.9	12
주민간 교류, 동아리 관련 서비스	15	2.9	9	12	3.2	9
정보취약계층(장애인/노인/이주민) 서비스	37	7.2	5	24	6.4	5
취업/창업 비즈니스 정보 서비스	21	4.1	7	21	5.6	6
코로나 시대 비대면 자료이용 서비스	35	6.8	6	13	3.5	8
정보신뢰성(가짜뉴스) 검증 서비스	8	1.6	13	10	2.7	11
홈페이지/모바일앱을 통한 디지털정보제공 서비스	14	2.7	10	17	4.5	7
도서관에서 먼 지역 서비스(방문/순회문고/이동도서관)	13	2.5	11	7	1.9	12
기타	2	0.4	14	1	0.3	14
합계	516	100	-	375	100	-

14.1%,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12.0%, 정보 취약계층(장애인/노인/이주민) 서비스 7.2%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타 구군 주민들은 정보 활용교육 서비스, 독서 관련 서비스,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검색 및 제공 서비스, 정보취약계층(장애인/노인/이주민) 서비스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는데, 중구 주민들과 순위만 조금 다를 뿐 1-5위에 포함된 항목들은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비대면 자료 서비스와 비즈니스 정보서비스도 어느 정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반면, 정보신뢰성 검증서비스, 메이커스페이스, 도서관과 먼 지역서비스 등은 낮게 응답하였는데, 이 결과는 응답자들이 최근 부각되는 이 서비스들에 대한 경험할 기회가 부족한 것이 이유라고 추정된다.

끝으로,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시 더 배려해야 할 이용자층은 무엇인지 총 14개 항목 중 3개를 선택하도록 질문한 결과, 〈표 21〉과 같이

중구 주민들은 청소년 17.0%, 대학생/대학원생과 어린이가 각각 11.0%, 취업준비생 10.8%, 노인층 9.3%, 장애인 7.9%, 직장인 5.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타 구군의 경우, 청소년 14.3%, 어린이 11.9%, 장애인 11.4%, 노인층 10.6%, 대학생/대학원생 9.5%, 취업준비생 9.3%, 직장인 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중구 주민에서 대학생/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의 순위가 조금 더 높고 장애인이 조금 더 낮을 정도로 순서 차이만 존재할 뿐 양측 모두가 1-7위까지 동일한 집단을 선택하였다. 청소년이 가장 높은 응답을 받은 것은 앞의 중구립 공공도서관 시설 관련 질문에서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은 것과 일맥상통하였다. 반면, 양측은 기타를 제외하면 중소기업인, 주부, 이주민, 중장년층, 가족 등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하였다.

〈표 21〉 중구립 공공도서관에서 배려해야 할 이용자층에 관한 인식

항목	중구			타 구군		
	빈도(명)	백분율(%)	순위	빈도(명)	백분율(%)	순위
영유아	28	5.4	9	16	4.2	10
어린이(초등)	57	11.0	2	45	11.9	2
청소년(중/고생)	88	17.0	1	54	14.3	1
대학생/대학원생	57	11.0	2	36	9.5	5
취업준비생	56	10.8	4	35	9.3	6
직장인	30	5.8	7	24	6.3	7
중소상공인(창업준비자)	10	1.9	13	13	3.4	13
주부	27	5.2	10	14	3.7	12
장애인	41	7.9	6	43	11.4	3
이주민(다문화가족)	22	4.2	12	23	6.1	8
중·장년층(40~50대)	24	4.6	11	18	4.8	9
노인층(60대 이상)	48	9.3	5	40	10.6	4
가족단위	29	5.6	8	15	4.0	11
기타	1	0.2	14	2	0.5	14
합계	518	100	-	378	100	-

4. 요약 및 결론

대구의 중심인 중구는 최근까지 지속적인 인구감소 등 원도심 공동화 현상을 경험하다가 지역 내에서 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재생 사업에 힘입어 향후 인구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지만 중구에는 현재 진행되는 리모델링 작업을 통해 변경되는 국채보상운동기념 도서관(현 중앙도서관)과 2·28민주운동기념회관 내 도서관 등 특수목적의 공공도서관만 존재할 뿐, 중구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 서비스를 책임지는 구립 공공도서관은 부재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시 주 이용계층이 될 중구 주민 175명과 대구의 타 구군 주민 125명 등을 대상으로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주민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구 주민과 타 구군 주민은 지역사회에서 현재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 크다고 인식하였으며, 향후 공공도서관이 가지는 가치도 모두 현재보다 조금 더 높아질 것으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공공도서관 부재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중구 주민과 타 구군 주민 모두 꽤 크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신/가족에 미칠 영향은 양측 모두 어느 정도 있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양측 모두 공공도서관 부재시 지역사회에 미칠 영향보다 자신/가족에게 미칠 영향이 조금 더 적을 것이라 응답한 것은 아직은 공공도서관이 자신과 가족의 필요성보다는 사회적 필요성이 더 크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중구 주민과 타 구군 주민의 공공도서관에 대한 높은 가치인식은 향후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추진함에 있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중구 공공도서관 수의 충분 정도에 대해 중구 주민과 타 구군 주민 모두 조금 부족하다고 응답하였고,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공공도서관 건립시 이용 의향에서도 양측 모두 이용 의향이 상당함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들이 중구 내 공공도서관 수의 부족과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의 필요성, 그리고 도서관 건립시 이용 의향 등에 대해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향후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입지와 건축 측면에서 입지조건은 양측 모두 대중교통 접근성을 최우선 입지조건으로 하였지만 중구 주민은 중구 중심지를 선호한 반면, 타 구군 주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을 더 선호하였고, 중구 중심지에 대한 선호는 낮았다. 이어 건물 측면에서 중구 주민들은 정보취약계층 배려 건축물을 가장 높은 점수를 주었고, 대중교통 접근성, 주차장 확보, 아름다운 건축물, 첨단 디지털 기술의 건축물, 큰 규모의 건물, 친환경 녹색 건축물, 공공기관과 복합건물, 상업시설과 복합건물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는데, 7점 척도에서 중간인 4점 이하로 응답한 것은 작은 규모의 건물이 유일하였다. 타 구군 주민들도 순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정도도 중구 주민들과 거의 일치하였다. 주민들은 대중교통 접근성과 주차장 구비를 대립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않았고, 구

모면에서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위해 작은 건물보다는 큰 건물을 강하게 희망하였다. 그리고 첨단 디지털 기술과 접목되고, 아름다운 외관을 가지며, 친환경 녹색 건축물로 건립되는데 상당한 동의를 표하였다. 또한 도서관의 복합시설 건축에도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는데, 중구 주민은 공공기관과의 복합건물에, 타 구군 주민은 상업시설과의 복합건물에 더 높은 점수를 주었다. 중구가 대구 8개 자치구군 중 최소의 적은 면적과 예산 규모를 가지면서 토지비는 높고, 중구청 소유 부지는 극히 제한적이므로, 복합시설로의 건축은 상당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¹¹⁾ 이와 같은 조사결과는 공공도서관 설계단계부터 최대한 반영하여, 중구립 공공도서관이 제대로 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립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도서관 내부 시설에 대해 중구 주민들은 더 안락한 시설에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이어 청소년 전용 공간, 내부공간의 유연성, 3D 프린터 등 디지털 장비의 구비, 신규 서비스를 위한 인쇄자료와 서가 공간 축소 등의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모두 평균 4점 이상으로 나타났다. 타 구군 주민들도 약간의 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 중구 주민들과 유사하게 응답하였다. 향후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시, 내부 시설을 도서관 기능 구현에만 중점을 두기보다 주민 요구를 반영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락하게 체류하면서 도서관이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지금의 열람 테이블과 좌석 위주에서 탈피하여

11) 최근 정부가 생활형 SOC 사업을 통해 공공도서관을 타 생활SOC 시설과 복합적으로 건립할 경우, 건립비용의 최대 50%까지 지원하므로, 구립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면서 도서관 이용자와 주민의 편의를 증진하도록 공영주차장 등과 함께 복합시설로 건립하는 방향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 다양한 선호와 이용목적에 고루 반영하여 소파, 벤치, 계단, 빈백, 안락의자, 온돌방, 텐트 등으로 다각화한다거나 가변 벽이나 이동형 서가와 테이블, 다목적 강당의 수납식 관람석 등을 통해 제한된 공간을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다섯째, 도서관 내부 공간에 대해 중구 주민들은 기존의 공공도서관에서 경험해온 공간인 독서/열람 공간, 자습용 자유열람실, 휴게공간, 컴퓨터/인터넷 공간, 프로그램/평생교육 공간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타 구군 주민들도 순위에서 조금의 차이를 보일 뿐 중구 주민들과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반면, 양측 주민들은 최근의 새로운 도서관 서비스를 위한 공간은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이 주변 도서관 등을 통해 현대적 도서관 서비스에 대해 경험하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도서관 이용방식과는 직접 관련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공간 기획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되, 과거부터 이어온 관행적 공간구성을 지양하면서¹²⁾ 새로운 사회변화와 기술적 변화를 도서관 공간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장서에서 중구 주민들은 일반도서(문학/교양, 어린이도서, 전자도서, 영상 스트리밍, 학술도서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타 구군 주민들도 순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와 비슷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의 성격에 맞는 일

반도서와 어린이도서 등을 중요시하면서, 최근의 정보환경과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해 전자도서와 영상 스트리밍 등 디지털 장서도 중요하게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장애인/노인 대상의 자료 유형과 신문/잡지 등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자료이용과 관련이 적거나 도서관이 아닌 다른 방법(인터넷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장서 유형과 관련해 주민들의 요구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함께 지역주민의 인구 분포, 중구를 대표하며 공립 작은도서관들을 지도하는 거점도서관의 지위 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서비스와 관련해 중구 주민들은 독서 관련 서비스, 정보활용 교육 서비스, 정보검색 및 제공 서비스, 문화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정보취약계층서비스 등의 순으로 중요하다고 응답하였고, 타 구군 주민들도 순위만 조금 다를 뿐 대동소이하였다. 반면, 정보신뢰성 검증서비스, 메이커스페이스 활용, 도서관과 거리가 먼 지역 대상 서비스 등은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였는데, 이는 주민들이 아직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중구의 상황(적은 면적과 원활한 대중교통 등)을 고려할 때 크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구립 공공도서관 서비스는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전통적인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를 고려하면서도 시대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도서관 서비스를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

12) 최근 공공도서관들은 각종 시험과 자격증 준비를 위한 자습용 열람실은 최대한 억제하는 한편, 안락하고 쾌적한 독서 및 정보이용 공간을 확대하는 추세이다. 『한국도서관기준』(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편, 2013)에서도 이러한 성격의 자유열람실 제공은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끝으로, 중구립 공공도서관이 더 배려해야 할 이용자층에 대해 중구 주민들은 청소년, 대학생/대학원생, 어린이, 취업준비생, 노인, 장애인 등의 순으로 높게 응답하였고, 타 구군 주민들도 순위에서 조금 차이가 있을 뿐 비슷하게 나타났다. 반면, 중소기업인, 이주민, 중장년층, 주부 등은 상대적으로 적게 선택되었는데, 이는 응답자들이 이들이 지역사회에서 차지하는 인구 비중이 적거나 이들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도서관 이용이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는 지역 내 특수한 목적을 가진 공공도서관만이 존재하는 대구 중구에 지역주민들을 위한 구립 공공도서관 설립을 위한 주민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실시되었다. 중구 관내에서 중구 주민 174명과 타 구군 주민 126명 등 총 3백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통

해 주민들은 공공도서관에 대한 가치를 높이 인식하고 있었고, 현 중구의 공공도서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이 필요하며, 건립시 이용 의향이 높은 것을 나타냈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중구립 공공도서관 건립이 필요하며 타당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과정에서는 도서관의 입지와 건축 방향과 장서, 서비스, 이용자 등에 관해 이번 조사에서 파악된 중구 주민들의 요구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하고, 중구를 왕래하는 타 구군 주민들의 요구도 고려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여기에 더해 지역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변화, 기술적 발전 등을 적극 반영하여 보다 구체적인 중구립 공공도서관의 건립계획과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은영 (2020a). 공공도서관 건립의 타당성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부산시 사상구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79-104.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79>
- 강은영 (2020b). 부산시청사 내 공공도서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국내 공공청사 내 도서관 현황과 부산지역 시민의식조사를 중심으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3), 411-437.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411>
- 곽승진, 노영희, 유소영, 김정택 (2016). 충남대표도서관 운영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이용자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3), 139-165.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139>
- 곽승진, 장덕현, 노영희, 강은영, 김정택 (2017). 울산대표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1(3), 133-161.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133>
- 구대선 (2019. 12. 22.). 도심지 대구시 청사 2025년 옛 두류정수장으로 이전. 한겨레신문.

- 출처: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21712.html>
-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 (2019). 생활SOC 3개년계획(안)(2020~2022). 세종: 관계부처합동.
- 출처: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944>
- 김선애, 권나현 (2020). 구립 공공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 및 요구에 대한 연구: 마포 구립도서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2), 29-52.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29>
- 김중윤 (2021. 3. 30.). 리모델링되는 대구중앙도서관, 장서 100년만의 대이동 시작. 대구일보.
출처: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103300055>
- 노영희, 김윤정 (2019). 도서관 복합문화공간에 대한 이용자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23-50.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23>
- 노영희, 장인호, 강지혜, 김동석 (2021). 인천광역시 동구 도서관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2(2), 1-24.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1>
- 대구광역시 (2018). 2020 대구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대구광역시 (2020). 대구 도시재생 기본방향.
출처: 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918&servletPath=%2Fbuild
- 대구광역시 중구 (2016). 중구 균형발전을 위한 마스터플랜: 2016-2025.
대구광역시 중구 (2021). 주민등록인구통계.
출처: <https://www.jung.daegu.kr/new/pages/administration/page.html?mc=1695&mode=view&num=323&page=1>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2019). 대구중앙도서관100년사.
- 대구발전연구원 (2014). 대구시 공공도서관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방안.
- 대구향교 (2020). 대구향교 시설안내. 출처: <http://www.daeguhyanggyo.org/~facinfo#no08>
- 류연정 (2018. 11. 19.). 대구시청 신청사 어디로? 중구의 사수 vs 유력 후보지 북구. 노컷뉴스.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5062079>
- 배주현 (2020. 7. 31.). 시청 후적지 개발 용역 착수...중구청-시(市) 마찰 '일단 멈춤'. 매일신문.
출처: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73015092610181>
- 윤희윤 (2010). 대구시 공공도서관의 공간 및 시설이용에 대한 인식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4(2), 73-95.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2.073>
- 윤희윤, 오선경, 이재민 (2016). 대구 시민의 공공도서관 인식 조사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2), 99-124.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99>
- 이제환 (2020). 한국인의 일상에서 도서관의 의미.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1(4), 25-57.

-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25>
- 장덕현 (2020). 부산지역 공공도서관에 대한 이용자 인식과 요구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4(1), 51-7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051>
- 장인호, 차주환 (2017). 공공도서관에 대한 천안 시민의 인식 조사 연구. 인문사회 21, 8(2), 313-332. <http://dx.doi.org/10.22143/HSS21.8.2.17>
- 정광진 (2021. 3. 24.). 대구중앙도서관 4월부터 전면 리모델링. 한국일보.
출처: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413200003152?did=NA>
- 조용원, 김종성 (2020). 일제강점기 대구부립도서관 건물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1(4), 145-16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4.145>
- 지선, 장윤금 (2017). 공공도서관 공간에 대한 청소년의 인식 및 요구 분석.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8(4), 461-48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 최수경 (2021. 1. 5.). 대구시 “캡프워커 정화작업과 동시에 대구대표도서관 건립...3차순환로 미개통 공사 착공”. 영남일보.
출처: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105010000561>
- 최재목, 정다운, 김찬우, 광재관 (2009). 일제강점기 신지식의 요람 대구 『友弦書樓』에 대하여. 동북아문화연구, 19, 211-225.
- 한국도서관협회 한국도서관기준특별위원회 편 (2013). 한국도서관기준 (2013년판). 서울: 한국도서관협회.
- 2·28민주운동기념회관 (2020). 연혁.
출처: http://library.daegu.go.kr/228lib/html.do?menu_idx=99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Bae, J. H. (2020, July 31). Started the development of the city hall trail site... Jung-gu Office-City friction 'stop for now'. Mael Newspaper. Available:
<https://news.imaeil.com/Society/2020073015092610181>
- Chang, D. H. (2020). Perceived needs of users toward public library services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1), 51-70.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1.051>
- Chang, I. H. & Cha, J. H. (2017). A study on Cheonan citizens' awareness of public libraries. Humanities Society, 8(2), 313-332. <http://dx.doi.org/10.22143/HSS21.8.2.17>
- Chi, S. & Chang, Y. (2017). A study on the young adult's perceptions and need toward the

- public library space.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8(4), 461-480.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7.28.4.461>
- Cho, Y. W. & Kim, J. S. (2020).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building of Daegu City Librar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1(4), 145-16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0.31.4.145>
- Choi, J., Chung, D., Kim, C., & Kwak, J. (2009). 'Uhyeonseoru(『友弦書樓』)' of Daegu in the colonial period of the imperial Japan. *North-east Asian Cultural Studies*, 19, 211-225.
- Choi, S. K. (2021, January 5). Daegu City “construction of the Daegu representative library simultaneously with the camp walker leanup... construction of unopened 3rd Ring Road begins”. *Yeongnam Ilbo*. Available: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105010000561>
- Daegu Central Library (2019). 100-year History of Daegu Central Library.
- Daegu Development Institute (2014). Daegu Public Library Expansion and Usage Promotion Plan.
- Daegu Hyanggyo (2020). Daegu hyanggyo facility guideline. Available: <http://www.daeguhyanggyo.org/~facinfo#no08>
- Daegu Metropolitan City (2018). 2020 Daegu Metropolitan City Urban Residential Environment Renovation Basic Plan.
- Daegu Metropolitan City (2020). Basic direction for urban regeneration in Daegu. Available: https://www.daegu.go.kr/build/index.do?menu_id=00935918&servletPath=%2Fbuild
- Jeong, G. (2021, March 24). Daegu Central Library has been completely remodeled since April. *Korea Daily*. Available: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2413200003152?did=NA>
- Jung-gu, Daegu Metropolitan City (2016). Master Plan for Balanced Development in Jung-gu: 2016-2025.
- Jung-gu, Daegu Metropolitan City (2021). Resident Registration Demographic Statistics. Available: <https://www.jung.daegu.kr/new/pages/administration/page.html?mc=1695&mode=view&num=323&page=1>
- Kang, E. Y. (2020a). A study on users' perception survey for the validity of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y: Focused on Sasangu in Busa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79-104.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79>

- Kang, E. Y. (2020b). A study on basic plan establishment of a public library in Busan metropolitan city hall: Focused on the analysis of library current state in government office and citizens' perception in Bus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3), 411-437. <http://dx.doi.org/10.16981/kliss.51.3.202009.411>
- Kim, J. (2021, March 30). Daegu Central Library, which is being remodeled, begins to move its collections for the first time in 100 years. *Daegu Ilbo*. Available: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103300055>
- Kim, S. A. & Kwon, N. (2020). Citizens' needs and perceptions of their municipal public library servic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4(2), 29-52. <http://dx.doi.org/10.4275/KSLIS.2020.54.2.029>
- Koo, D. (2019, December 22). The downtown Daegu city government building moved to the old Duryu water purification plant in 2025, *The Hankyoreh newspaper*. Available: <http://www.hani.co.kr/arti/area/yeongnam/921712.html>
- Korean Library Association (2013). *2013 Library Standards in Korea*. Seoul: Korean Library Association.
- Kwak, S. J., Chang, D. H., Noh, Y., Kang, E. Y., & Kim, J. T. (2017). A study on user's perception survey for activation of Ulsan representative libra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1(3), 133-161. <http://dx.doi.org/10.4275/KSLIS.2017.51.3.133>
- Kwak, S. J., Noh, Y., Yu, S. Y., & Kim, J. T. (2016). Study on users' perception for establishment of Chungnam representative library's basic pl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3), 139-165.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9.139>
- Lee, J. W. (2020). Meanings of library in the daily life of Korea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4), 25-57. <http://dx.doi.org/10.16981/kliss.51.4.202012.25>
- Life SOC Promotion Team, Office of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2019). *Living SOC 3-Year Plan(draft)(2020~2022)*, Sejong: Joint Ministries. Available: <https://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944>
- Memorial Library for 2·28 Student Movement (2020). *History*. Available: http://library.daegu.go.kr/228lib/html.do?menu_idx=99
- Noh, Y. & Kim, Y. J. (2019). A study on the user recognition of library complex culture spa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3(4), 23-50.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023>

- Noh, Y., Chang, I., Kang, J. H., & Kim, D. (2021). Study on perceptions for establishing mid-to long term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for libraries in dong-gu, Inche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1(2), 1-24.
<http://dx.doi.org/10.16981/kliss.52.2.202106.1>
- Ryu, Y. (2018, November 19). Where is the Daegu city hall office? Jung-gu's shooter vs. Buk-gu, a strong candidate, No Cut News. Available:
<https://www.nocutnews.co.kr/news/5062079>
- Yoon, H. Y. (2010).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space and facility use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44(2), 73-95. <http://dx.doi.org/10.4275/KSLIS.2010.44.2.073>
- Yoon, H. Y., Oh, S., & Lee, J. (2016). A survey of citizens' perceptions on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9(3), 33-53. <http://dx.doi.org/10.16981/kliss.47.201606.99>

